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8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올해 신규과제 4건 ... 이월과제 등 총 5건 분쟁과제 해결 추진키로



한국수산회는 4월 20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금년도 5개의 분쟁과제를 채택, 해소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수산회는 4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분쟁조정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자율조정협의(총괄협의회)(위원장 김영규)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신규로 채택된 4건의 분쟁과제를 확정해 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난해 이월과제 1건(진도 전두·

나리 간척지구 외해수역 한정면허 김양식지의 어촌마을간 조업분쟁)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 조정을 진행키로 해 2018년에 총 5건의 분쟁과제 해결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전남 완도 노화 당산공동체와 노륙도 어업인간 양식어장 분

쟁 △완도 약산 화가·여동 어촌계 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 등 2건의 분쟁과제에 대한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4년에 구성된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46건의 어업분쟁을 조정 완료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신규과제로 채택된 4건의 분쟁조정 과제는 △경기 화성 김양식어촌계와 어선어업자간 분쟁 △충남 홍성 남당어촌계와 어사어촌계간 어장개발 분쟁 △전남 완도 약산 득암(사당)어촌계와 가사어촌계간 해조류양식어장 개발 분쟁 △부산 송정어촌계와 청사어촌계간 조업구역 분쟁 등이다.

해수부, 수산업경영인 1,357명 선정 발표

해양수산부는 4월 13일 수산업경영인 1,357명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994명, 전업경영인 326명, 선도우수경영인 37명 등 총 1,357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636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도 253명(18.6%), 전북도 106명(7.8%), 충청남도 104명(7.6%)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696명(51.4%), 어선어업 607명(44.7%) 등이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2억원, 전업경영인은 최대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에게는 최대 3억원의 융자사업비를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자율관리어업 지역별 컨설턴트 위촉 시도별 15명 선정 ... 부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



4월 9일 열린 자율관리어업 지역별 컨설턴트 회의 모습. 올해 처음으로 활동부진 공동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퇴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컨설턴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담당 컨설턴트를 새로 위촉하고 4월 9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2면>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는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15명을 비롯,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 후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방안 등 컨설턴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컨설턴트는 2년 연속 평가점수 300점 미만인 부진공동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수산회에서 '어업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수산회로 연락해 주시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분쟁조정 비용은 무료입니다.

- 분쟁조정 사례접수 -

-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및 관련 단체
- 내용 : 공동체간 분쟁 및 공동체와 미가입어촌계간 분쟁 등
- 문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자율관리어업 경남도연합회

경남도 관내 수산관계자와 공동체 활성화 간담회



자율관리어업 경남도연합회는 관내 시·군 수산담당 관계자들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율관리어업 경남도연합회(회장 이기진)는 3월 29일 경상남도수산물산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경남도 관내 시·군 수산담당 관계자들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업종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으로, 자율관리어업 경남도연합회 시군 연합회장을 비롯, 경남도 사업소의 공동체 평가

담당자, 시·군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거제새우조망공동체(서경수 위원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공동체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삼천포외줄낙시 자율관리공동체, 사천 바다케이블카 개통 앞두고 환경 정비 활동



삼천포외줄낙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천기현)는 사천 바다케이블

카 개통을 앞둔 지난 4월 6일 삼천포대교 공원 일대에서 3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경남 사천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이자 랜드마크가 될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총 길이 2,422m에 이르는 국내 최장거리 해상케이블카로 지난 4월 13일 개통했다.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충북 중앙탑 및 한수내수면공동체, 여수 안포공동체 방문



충북 중앙탑 및 한수내수면공동체는 4월 16~17일 전남 여수 안포공동체를 방문, 성공사례전수 교육을 받고 공동체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이 4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 안포공동체에서 열렸다. 이날 충북 중앙탑 및 한수내수면공동체 회원 30여명은 안포공동체를 방문, 이희한 위원장으로부터 안포공동체의 활동 및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들

고, 패류가공시설 등 주변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충북 중앙탑 및 한수내수면공동체 회원들은 자원관리 및 어장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제1회 충남수산인 한마음대회



충남도내 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제1회 충남수산인 한마음대회가 4월 7일 태안군 만리포 공영주차장에서 열렸다.

충남도는 4월 7일 태안군 만리포 공영주차장에서 도내 수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충남수산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충남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수산인 가족, 기관단체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충남어촌'을 주제로 수산발전 유공자 표창과 깨끗한 바다만들기 결의, 수산인 한마음경기, 초청가수 공연,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등이 펼쳐졌다. 수산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서산수산업협동조합 김성진 조합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당진수산업협 조합 양명길 조합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18년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 회의실에서 금년도 지역담당 컨설턴트 15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는 대부분 현장

지도 경험이 풍부한 지도직 공무원 출신으로, 이들은 4월부터 2년 연속 평가 점수 300점 미만인 부진공동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컨설턴트 담당 지역 및 주요 근무경력

- 김중규 (부산·울산·마산 담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수산자원연구소
- 김옥환 (통영·고성 담당) 경남 통영시 산업과 수산계, 경남 통영시 수산개발국 (해양개발과, 해양수산과)
- 서봉규 (거제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통영연구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 경남수산물기술사업소(거제)

- 하태인 (사천·남해 담당) 통영수산기술관리스,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 통영·고성·남해어촌지도소
- 박군출 (인천 담당) (사)한국수산회 인천 컨설턴트, 인천시 수산지원연구소 및 수산사무소, 고창수산사무소
- 이승우 (태안·충북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군산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수산물기술관리스

- 천명길 (보령·군산·부안·경기 담당) 경기도해양수산지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경기도청 내수면팀
- 박영근 (원도·해남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해남어촌지도소, 전남 영광군 해양수산과
- 양광희 (목포·영광 담당) 목포,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소
- 김동철 (진도·강진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지원, 국립수산과학원 목포수산사무소, 전남 수산물기술사업소 목포지소
- 임여호 (여수 담당) 여수·고흥 수산사무소, 전남해양수산과학원

- 권승배 (고흥·장흥 담당) 국립수산진흥원 여수지원, 전남 영광군 수산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 한형교 (강원 담당) 울릉, 동해, 속초해양수산사무소, 포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조용현 (경북 담당) 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경북도 해양수산과, 경북도 수산지원연구소
- 최영진 (제주 담당) 제주어촌지도소, 제주해양수산지원연구소, 제주도 수산정책과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업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꼭 지켜야 할 활동이라는 것은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지금 공동체 어업인 수는 7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비록 정부에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는 있지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인센티브)가 몇 년 사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참여 공동체의 활동의지가 저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비롯, 어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민물 가마우지 피해 심각한 수준

한 예로 내수면 분야에는 최근 민물 가마우지(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민물 가마우지로 인해 지금 내수면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수중생태계 교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라도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재학
인천내수면공동체 위원장
(경기도연합회장)

지금 정부에서는 수산 자원 증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지체장 확대, 세목망 개선, 불법어업 단속강화 등도 수산자원 관리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다.

공권력 동원하여 불법어업 대처해야

지금 불법어업은 갈수록 지능화, 체계화되고 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어 현재의 단속 형태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법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법시 처벌규정이 강할 경우 굳이 재산상, 신변상의 불이익을 감수하

면서 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있을까?

자율관리어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자율관리어업은 궁극적으로 어촌사회 발전을 이끄는 '새어업운동'이라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맞춤형 현장교육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공동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에서 생각과 방법이 달라 갈등도 없지 않지만,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여 자율관리어업, 나아가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2018년 자율관리어업 신규 분쟁조정 과제



한국수산회가 주관한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들이 신규과제를 채택하고, 분쟁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4월 20일 자율조정협의회를 갖고 금년도 4건의 신규 분쟁과제를 채택,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은 올해 신규 분쟁조정 과제 내용이다.

■ 경기 화성 김양식 어촌계와 어선어업자간 분쟁

김양식 시기에 건흥을 해야 하는데 어선어업자들이 어구를 설치해 놓고 철망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 김양식 어촌계에서는 김 양식 시기에는 어구 철망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어선어업자들은 면허지역이 오랫동안 조업해 온 해역으로 동의 없이 면허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 충남 홍성 남당어촌계와 어사어촌계간 어장개발 분쟁

해삼어장 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충남 홍성군에서 공고한 지선이 남당어촌계는 행정구역상 남당어촌계 마을 지선임을 주장하고, 어사어촌계는 과거부터의 관행임을 주장함에

따른 분쟁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홍성군은 해당 어장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 전남 완도 약산 득암(사당)어촌계와 가사어촌계간 해조류양식어장 개발 분쟁

전남 완도군에서 2016년 해조류 양식 어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득암(사당)어촌계와 가사어촌계간 양식어장 경계선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다.

■ 부산 송정어촌계와 청사어촌계간 조업구역 분쟁

1960년대 초 부산 송정어촌계가 경남 동래군 기장면에서 부산시 해운대구로 편입될 당시 당초 두 어촌계간(송정어촌계-청사어촌계)간 합의한 조업구역에 대한 이견차로 발생한 분쟁이다. 송정어촌계는 어촌계원 동의 없이 면적을 축소해 합의한 것은 잘못이므로 애초 조업구역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사어촌계는 양 어촌계장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변경 체결된 조업구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꾸미 5월부터 8월까지 어획금지 어획량 반 토막에 금어기... 관련 법령 국무회의 통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란기(3월~5월)의 알밴 주꾸미와 성육기(8월~10월)의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최근 주꾸미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산지 어업인과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노력할 방침이다.

경남 고성군 정치망자율관리공동체 관내 어항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경남 고성군은 4월 16일 삼산면 두포리 두모, 포교항 인근에서 생활쓰레기, 폐부자 및 폐그물 등 10여톤을 수거하는 대대적인 바다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해안변 청소활동에는 정치망고성 정치망자율관리공동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제주에서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제주에서 열린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7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3월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신바람 나는 수산인'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시자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등 수산업 관계자와 제주도 어업인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산업 발전 유공자 23명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최고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정영순 대형기선 저인망수협 조합장이 받았다.

해남에 해조류·전복 신제품 보급센터 개소식



우리나라 수산중자산업의 발전을 이끌 해조류연구센터와 전복종자보급센터가 4월 3일 전남 해남군에 문을 열었다. 이날 센터 개소식과 함께 '킹전복' 브랜드 선포식도 개최됐다.

전남 해남군에 해조류 연구센터 및 육종전복보급센터가 3일 개소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운영하는 보급센터는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에 해조류 연구센터 1424㎡, 육종전복 보급센터 1046㎡ 규모로 건립됐으며 육종 신제품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종자 현장보급,

현장 모니터링, 기술 이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복양식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킹전복(Kingjunbok) 브랜드 선포식과 함께 신제품의 유생 전달도 이뤄졌다.

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 선정 지원단가 인상 ... 7월 말까지 신청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하고,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약 9만여 도서지역

어가(누적)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해 제주도 읍면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4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보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6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꺼두면 과태료 부과 어선법 개정안 시행 ... 처벌규정 대폭 강화

다음달부터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 사회적 비용

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수리 시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 최대 30만원→300만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동체 탐방 / 보령 섬사도 자율관리공동체

명품 바지락 생산에 주력 ... 양식장 절도방지 위한 민·관·군 협약 이끌어내



김상배 섬사도공동체 위원장.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섬사도 공동체 회원들이 김상배 위원장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보령관내 섬마을 대표들이 4월 9일 보령시청에서 해양경찰 및 군부대와 해산물 도난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섬사도 공동체 회원들이 바지락 채취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여객선으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섬사도는 1980년 중반까지는 김양식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바지락과 해삼을 주요 품목으로,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공동체 참여 회원은 119명에 복합어업 16건과 300ha의 마을어장, 어선 24척을 보유하고 있다.

섬사도어촌계도 여느 어촌마을처럼 자율관리어업 참여이전에는 회원간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바지락어장의 행사계약을 둘러싼 회원간 이견차로 불신

이 커지자 김상배 위원장(65)은 2011년부터 바지락양식장의 행사계약을 완전히 없애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때에도 행사계약자들이 마지막 수확에서 작은 종패까지 싸늘이 수확해 감으로써 이후 2년간 전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자체 관리로 전환하면서 연간 1인당 분배금이 종전 70~8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회원들의 참여의지도 명달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매일같이 어장에 나와 어장환경 개선과 자원조성 작업을 독려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처

리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양식·복합어업분야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것도 이같은 노력의 결실이다.

이처럼 자율관리어업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고, 회원들이 뒤에서 밀어줄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섬사도의 또다른 주력품목은 해삼이다. 이곳에서는 사전 입찰을 통해 출하주를 확정하고 나잠(해녀)을 통해 수확하고 있다.

매년 70~80톤을 수확해 마을 재정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해삼은 섬사도공동체의 이같은 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자행되는 해삼 절도범의 해삼 절취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다지킴이 어장관리단을 운영하며 철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마음먹고 달려드는 도둑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의 주도로 보령관내 섬마을 어촌계 대표들은 지난 4월 9일 보령시와 보령해양경찰, 군부대가 양식장 절도방지에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또다른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